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3. 9. 26.(화) 11:00,
(지면) 2023. 9. 27.(수) 조간

배포 2023. 9. 26.(화) 06:00

추석 연휴에도 항만은 돌아간다, ‘전국 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’ 운영

- 긴급 화물 대비 비상 운영 체계 구축, 필요한 경우 사전 운영사에 요청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추석 연휴에도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27일(수)부터 10월 3일(화)까지 전국 주요 항만별로 ‘항만운영 특별대책’을 운영한다.

항만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되며, 긴급한 경우 추석 당일에도 항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 화물을 반·출입할 계획이 있는 화주 및 선주는 사전에 부두운영사에 요청해야 한다. 이 외에 긴급 화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,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에 돌입한다.

또한 원활한 선박 입·출항을 위해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‘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(PORT-MIS)*’도 정상 운영하고,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할 예정이다.

* Por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: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

예선업체*와 도선사**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, 선박연료공급업, 항만용역업 및 선용품 공급업 등 항만운송관련 사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되, 미리 요청이 있을 경우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
* 선박이 부두에 접안 또는 출항할 때 선박을 밀거나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선박 운영 업체

** 선박에 승선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전문인력

이 외에도,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하고,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여 항만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.

○ 각 지방해양수산청(11개*) 누리집(아래 표)

- 해양수산부 누리집(www.mof.go.kr)에서도 각 기관으로 연결 가능

* 부산, 인천, 여수, 마산, 동해, 군산, 목포, 포항, 평택, 울산, 대산지방해양수산청

부산	www.portbusan.go.kr	포항	pohang.mof.go.kr
인천	incheon.mof.go.kr	평택	pyeongtaek.mof.go.kr
여수	yeosu.mof.go.kr	울산	ulsan.mof.go.kr
마산	masan.mof.go.kr	대산	daesan.mof.go.kr
동해	donghae.mof.go.kr	군산	gunsan.mof.go.kr
목포	mokpo.mof.go.kr		

○ 항만공사(4개) 누리집

- 부산(www.busanpa.com), 인천(www.icpa.or.kr), 울산(www.upa.or.kr), 여수광양(www.ygpa.or.kr)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	책임자	과 장	최종욱 (044-200-5770)
		담당자	사무관	박찬수 (044-200-5771)



참고

관련 사진 등

